

## 특별인터뷰 / 정상익(대한장애인볼링협회 회장)

취재 | 이환모 발행인  
사진 | 볼링인매거진 / 대한장애인볼링협회

# 배려와 존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한계를 뛰어넘자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장애인볼링장 건립 희망

정상익 회장은 제4대 대한장애인볼링협회장을 역임한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볼링발전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국제대회 우승으로 한국 장애인 볼링의 위상을 높였고, 장애인볼링의 화합과 단결, 국제교류 확대, 장애인 볼링의 지위 향상 및 장애인볼링 활성화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연임에 성공해 2024년까지 대한장애인볼링협회를 이끌게 된 정상익 회장은 관련부처 및 각 종목 협회와 협의하여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장애인볼링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며, 장애인볼링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추진, 장애인 전문체육 확대, 장애인 동호회 활성화 등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화합과 단결, 배려와 존중으로 모든 장애인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1] 정상익 회장



[2] 정상익 회장은 지난 제4대 회장에 이어 5대 회장을 맡아 대한장애인볼링협회를 이끌고 있다.

### 국제대회 우승 등 장애인볼링 위상 높여

정상익 회장은 2017년 취임 당시 협회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 임원 선수 간 화합과 단합을 통해 한국 장애인볼링의 위상제고 및 장애인들의 지위 향상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한장애인볼링협회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국제무대에서 한국 장애인볼링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2017년 터키 삼순에서 열린 데플림픽에서 한국 대표 팀이 우승(금6, 은8, 동7)을 안았고,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18개 금메달 중 무려 12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등으로 협회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협회 조직과 선수 지도력,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선수들의 경기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장애인이 경쟁할 수 있는 전국체전이 매년 열리며, 연 7개 내외의 전국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꾸준한 기량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4년 임기 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녀너지 못한 협회 살림살이지만 저를 비롯한 임원과 지도자, 선수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이룩한 기적과도 같은 값지고 소중한 결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장애인볼링의 위상을 세계무대에 떨칠 수 있었던 데는 장애를 딛고 일어서

선수, 이들을 지도한 코칭스태프와 늘 노력봉사는 협회 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모든 분들께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대한장애인볼링협회가 지난 4년 간 정 회장 체제하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2개 종목, 등록선수 850여 명

2010년 출범한 대한장애인볼링협회 산하에는 17개 시·도 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선수는 약 850명에 이른다. 장애 유형별 총 12개 종목을 관장하고 있어 비장애인 종목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종목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표선수 선발과정, 선수 훈련 및 지도방법 등이 까다롭고, 협회 운영도 그 만큼 어려움이 따른다.

정 회장은 “장애인 볼링의 경기 종목 유형이 이처럼 많은 만큼 다양한 선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간혹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협회임원과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현재 12개 종목 중 7개 종목 국가대표를 선발해 운영 중입니다. 각 종목별 3명씩 총 21명의 국가대표선수를 감독 1명, 코치 4명이 지도하고 있으나 각 종목별, 유형별 지도방법 등이 다르기에 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일반인들이 평소에 장애인 볼링의 유형별, 종목별 특성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관심을 가져준다면 장애인볼링이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 체육 고용 확대 필요

현재 협회에 등록된 장애인 볼링선수 850여 명 중, 약 180명 내외의 선수가 일반 기업체에 고용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들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있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앞으로 이를 지방으로까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며, 이는 볼링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 종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하루 빨리 장애인 체육에 대한 고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볼링협회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3] 2018년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은 금 12, 은 7, 동 3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문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실업팀 창단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2곳(경기도장애인체육회(2명), 충남 흥성장애인체육회(1명))에 장애인볼링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등록선수 대비 실업팀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정 회장은 “과거 제가 경기도장애인볼링협회장 재직 당시 경기도장애인볼링 팀 창단을 주도했었죠.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인볼링 팀 창단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속 선수도 단 3명에 그치는 등, 장애인 체육에 대한 고용과 함께 전문선수들이 직업적으로 선수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업팀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협회가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선수의 발굴 및 육성도 협회 추진 사업 중 하나이다. 장애인학교를 대상으로 전문볼링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협회와 해당 교육청과의 업무협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장애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볼링체험, 더 나아가 볼링선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장애인들이 볼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장애인볼링장 건립 꿈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장애인볼링장 건립에 대해서도 협회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 회장은 “관련부처와 각

종목별 협회와 협의하여 장애인종합체육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비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은 그렇게 많은데 정작 장애인종합체육관은 단 한곳도 없다는 점은 아쉽기만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볼링장 건립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대표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볼링을 즐기는 모든 선수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볼링장이 하루 빨리 건립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장애인볼링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도 정 회장과 임원, 선수들이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다. 현재 비장애인 볼링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함께 극복하여 동시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기를 정 회장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실 볼링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전 세계 모든 볼링인들의 바람입니다. 저희 장애인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볼링인들이 힘을 모아야죠. 저희 협회와 임원, 선수 역시 모두 하나가 돼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참여 기대

장애인볼링의 국제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아시아 각국과의 국제교류 일환으로 지도자 및 선수의 초빙 및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19년 태국선수단을 초빙해 선수들의 지도방식 및 훈련과정 등 정보와 지식을 나누었고, 이것이 태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다.

“앞으로 지도자 및 선수들의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의 해외 파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 장애인 볼링의 위상을 높이고, 볼링이 올림픽에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아시아연맹이나 국제연맹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실정인데 우리 한국의 지도자와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협회와 임원의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국제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볼링 경기력이 세계 정상급인 만큼 각국 간 국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능력 있고 우수한 지도자의 해외 파견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2017 터키 삼순 데플림픽에서 한국은 금 6, 은 8, 동 7개로 종합우승을 안았다.

### 하나가 되어 함께 이루는 꿈 소망

대한장애인볼링협회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현재 임원진과 뜻있는 소액기부자(월 5천원~2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협회운영에 힘이 되고 있다. 협회 추진 사업 역시 임원 중심보다는 전문위원회(총 10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위원회의 의견과 제안을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는 모두 정상익 회장의 협회 운영 방침이다.

정 회장은 오산시볼링협회장과 경기도장애인볼링협회장을 역임한 후 4년 전 대한장애인볼링협회장으로 취임했다. 26년 전부터 볼링장을 운영해 오는 등 누구보다 볼링을 잘 알고 있으며, 볼링장을 운영할 당시 장애인볼링 동호회에 볼링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면서 인연이 맺고, 협회장까지 맡아 오랫동안 볼링발전에 헌신해 오고 있다.

“제 스스로 지난 4년 성과의 점수를 주자면, 약 60점 정도입니다. 물론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도 곳곳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0 세계 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한국 개최가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취소돼 많이 아쉽습니다.”

정 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협회 임원 등 모든 볼링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홀대받고,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볼링장들도 장애인들이 맘 놓고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시고, 각종 편의시설과 환경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이 마음까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 중 일원입니다. 장애인 역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죠. 서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장애인볼링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상익 회장 프로필



1952년생(70세)  
 오산시볼링협회장 역임  
 경기도장애인볼링협회장(2012~2016)  
 제4대 대한장애인볼링협회장(2017~2020)  
 제5대 대한장애인볼링협회장(2021~현재)

#### 대한장애인볼링협회 제5대 임원진 명단

회 장 정상익 / 선임부회장 구태선 / 부회장 이기택 황인원 김평호 이상원 김준환  
 기획이사 허강연 / 총무이사 김진홍 / 기술이사 김명조 / 경기이사 이종일 / 지적분과이사 강정아 / 지체분과이사 이종근 /  
 시각분과이사 정성영 / 이사 이현주 김유민 백재근 한강기 고훈호 유성희 이광용 김현륜 / 행정감사 한광섭 / 회계감사 이범구